

#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자기 효능감 및 학습전이동기에 미치는 효과

서유진<sup>1</sup>, 한은경<sup>2\*</sup>

<sup>1</sup>동의대학교 의료보건생활연구소, 간호학과 교수, <sup>2</sup>을지대학교 간호대학(성남) 교수

##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efficacy for group work, and Learning Transfer Motivation of Nursing Students i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Education based on Blended Learning

Yujin Suh<sup>1</sup>, Eun-Kyoung Han<sup>2\*</sup>

<sup>1</sup>Professor, The College of Nursing, Healthcare Sciences and the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sup>2</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COVID-19 pandemic으로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임상실습이 제한되면서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호학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전이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11일까지 간호대학생 64명이 참여하였으며 온라인 구글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습 전과 실습 후에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호학실습프로그램 전에 비해 후에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전이동기가 유의미하게 상승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호학실습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임상현장실습을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정신간호학실습교육의 실행성과 후속연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코로나 19, 블렌디드 러닝,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습전이동기, 정신간호학 실습

**Abstract** The study developed a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program based on blended learning as nursing students' field practice in psychiatric and mental nursing practice was limited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This is a study to evaluate the effect on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efficacy for group work, and learning transfer motivation through a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program based on blended learning. From October 18, 2021 to December 11, 2021, 64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using a structured Google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using the SPSS 25.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based on blended learning, the subjects'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efficacy for group work, and learning transfer motivatio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compared to before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educa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program based on blended learning.

**Key Words** : COVID-19, Blended learning,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efficacy for group work, Learning transfer motivatio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This work was supported by Dong-eui University Grant.(202101740001).

\*Corresponding Author : Eun-Kyoung Han(haahaa21@hanmail.net)

Received January 4, 2022

Revised February 3, 2022

Accepted February 20,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 1. 서론

2020년 3월 WHO는 COVID-19를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선언하였다[1]. 2022년 1월 기준으로 국내의 COVID-19 누적 확진자는 약 60만명이 넘는 것으로 발표되었고[2] 2021년 11월 우리나라는 위드코로나를 선언했지만 COVID-19 신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2021년 12월 18일부터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COVID-19의 장기화와 반복되는 감염의 확산은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및 보건의료계에 위기로 다가오고 있으며 간호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3].

간호교육은 COVID-19 이후 강의실 대면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병원에서 수행되었던 임상실습 교육은 감염 확산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다[4]. 간호대학생은 미래 간호사로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5]. 하지만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나가지 못하면서 임상수행능력을 습득함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대학생 1인당 1000시간의 임상실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2020년 COVID-19 팬데믹 이후 임상실습을 교내실습이나 온라인 실습의 대체로 허용하였다[6].

이러한 COVID-19 상황에서 간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수자들은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상실습 대체로 이루어지는 교내실습이나 온라인 실습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7].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의 목표는 전인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환자중심간호(patient-centered care)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재를 통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8]. 이 가운데 정신간호학 실습 교육은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여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COVID-19 확산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안정병동, 정신전문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신간호학 실습이 제한되면서 간호대학생들은 실제 정신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쌓고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사라졌으며 정신질환자의 문제 및 요구도를 사정하고 증재를 제공하면서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자원을

활용해야 할 기회 또한 없어졌다[9].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하여 정신간호학 임상실습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블렌디드 러닝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방법을 결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이 혼합된 학습 방법으로 다양한 차원의 학습을 통하여 최상의 학습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0]. 단순히 오프라인 학습과 온라인 학습의 연계된 방법 뿐 아니라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의 연계, 실시간 및 비실시간 연계, 다양한 콘텐츠의 통합하는 방법을 통해 최상의 학습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 또한 학습자 측면에서는 편리성, 접근성 등의 장점이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0]. 블렌디드 러닝의 메타분석 결과 100% 대면 혹은 온라인 강의보다 블렌디드 러닝이 학업성취와 학습동기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1]. COVID-19 상황에서 정신간호 현장 실습기관이 제한되면서 현장실습과 온라인 실습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 기반 정신간호실습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정신간호실습은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의 정신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12]. 반면 정신간호실습은 정신질환자를 실제로 만나기 전에 정신과 병동과 환자에 대한 두려움, 불안, 무섭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13] 실질적인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인 실습 전에 온라인 실습을 통해 의사소통을 훈련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사정 적용등의 훈련을 시행한 후 오프라인 실습에서간호를 직접 수행해볼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정신간호학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해보고자 한다.

정신간호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대상자와 신뢰 관계를 통해 새로운 대처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삶의 의미 발견을 촉진시켜 대상자가 안녕 상태에 이르게 하는 간호의 목표이다[14]. 의사소통 기법에는 경청, 공감, 재진술, 반영, 초점 맞추기, 침묵, 제안, 말머리 돌리기와 같은 치료적 및 비치료적 의사소통이 사용되고 있다[15]. 이러한 의사소통 기법은 이론 교과목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블렌디드 기반 정신간호학실습은 팀 기반 실습 과제

가 현장실습과 온라인 실습에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팀원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공동으로 과제를 성취해 낼 수 있는 자신감으로 [16] 팀 기반으로 진행되는 학습전략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동료피드백 시뮬레이션 실습에 대한 연구결과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습 만족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동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습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8]. 그러므로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미래에 임상에서 협력하며 근무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학습전이동기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임상실무 상황에 적용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실습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다. 플러닝을 활용한 팀 기반 학습이 학습전이동기를 증가시켰다[19]. 하지만 이론 수업에서 적용한 연구결과로 실습교육에서 적용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COVID-19 이후 정신간호학실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교내실습 경험연구[9], 온라인 실습 경험연구[20]과 같은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빠르게 변화되는 간호교육에 대해서 질적연구 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를 통한 효과성이 입증과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COVID-19의 장기화는 간호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임상실습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정신간호학실습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전이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 2. 연구가설

- 가설1. 블렌디드 러닝 기반 정신간호학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 것이다.
- 가설2. 블렌디드 러닝 기반 정신간호학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 가설3. 블렌디드 러닝 기반 정신간호학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학습전이동기가 높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정신간호학실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전이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원시실험설계(One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이다.

### 3.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일개 4년제 간호대학 간호학과에서 '정신간호학실습'을 수강중인 3학년 학생들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로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일군 paired t-test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구한결과[21] 효과크기 .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22]로 설정하였을 때 54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70명으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사전 또는 사후 설문지를 미완성한 대상자 6명을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6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정신간호학I, II 이론 교과목 5학점을 선 수강한 이후에 실습교과목을 이수하며,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도 정신간호학 이론적 지식의 강의를 수강하고, 3학년 2학기에 정신간호학실습I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64명이 실습하기 전에 사전 조사에 참여하였고, 2주의 실습이 끝난 후 사후 조사에 참여하였다.

### 3.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11일에 이루어졌으며 정신간호학실습 사전, 사후에 구조화된 구글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시간은 약 15분정도이었다. 본 연구의 설계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 3.4 연구도구

#### 3.4.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Philips[23]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을 허경호[24]에 의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

한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최소 15점에서 최고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허경호[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2$ 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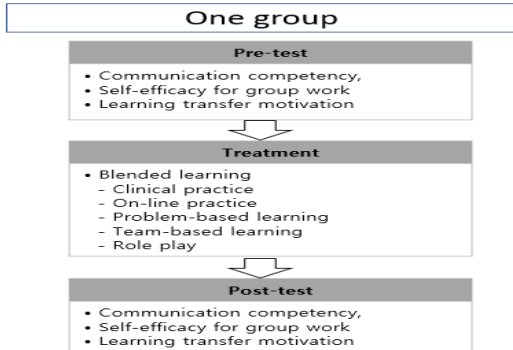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design

#### 3.4.2 협력적 자기효능감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Alavi와 McCormick[25]의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김세영과 강명희[26]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는 점수를 의미한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최소 19점에서 최고 9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리더십의 발휘' 5개 문항(4,6,8,12,16번), '의견 교환' 5개 문항(3,7,10,13,18번), '의견 평가' 3문항(2,11,17번), '의견 통합' 6문항(1,5,9,14,15,19번)이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 3.4.3 학습전이동기

학습전이동기는 Ayres[27]가 개발하고 박신영과 권영란[28]이 변안한 도구로 측정하는 점수를 의미한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7점 척도로, 최소 10점에서 최고 7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전이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습전이동기는 새롭게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를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27].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 3.5 블렌디드 러닝 정신간호학실습 프로그램

블렌디드 러닝 기반 정신간호학실습 교육은 그룹별 인원 8명이 하루 9시간씩 온라인 실습 5일과 오프라인(현장실습) 실습 5일로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현장실습은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되었다. 정신간호학 실습의 학습목표는 정신간호의 기본원리 즉 자기이해, 의사소통능력, 간호과정 및 정신질환의 이해를 토대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고 치료적 정신간호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다[29]. 이러한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Table 1참고).

정신간호학실습 직전에 본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실습이 진행되었다. 1일차에는 교수자가 제작한 온라인 실습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후 온라인 실습에서 달성해야 할 실습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수자와 화상토의를 통해 실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1일차는 자기인식 및 이해와 정신사회적 발달단계 MAP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개별 실습을 수행한 후 실습성찰 일지와 개별 과제를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하였다. 2일차에는 정신간호학에서 요구되는 학습목표 가운데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을 적용하기 위해 2인 1조로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녹음된 자료를 재청취하여 자신의 의사소통을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소통 분석내용과 동료에게 피드백 받은 내용을 실시간 화상회의 시간을 통해 발표하고 교수자는 의사소통 기법을 지도하였다. 3일차에는 팀기반 치료적 의사소통 시나리오 개발 및 역할극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교수자가 개발한 시나리오 주제 6개(환청을 호소하는 환자, 피해망상을 호소하는 환자, 위축 및 고립된 환자, 가족교육, 사 치료적·비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이 포함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역할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나리오에 포함될 평가 지침을 사전에 제시하였고, 동료평가 및 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일차는 교수자가 녹화한 정신간호과정 및 정신상태검사 평가(MSE)를 사례를 통해 제시한 동영상 강의(1시간)로 이루어졌다. 정신상태 검사평가(MSE)에 대한 온라인 강의와 교수자가 개발한 2개의 사례를 실시간 화상회의 시간을 통해 사례중심 학습을 적용하였다.

Table 1.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education based on blended learning

Time	Activities	Contents	Method	Duration (hours)
On-line practice (1day-5day)				
Pre-class	On-line ori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e-survey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efficacy for group work, learning transfer motivation)</li> <li>Online practice orient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urvey</li> <li>Video lectur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5h</li> <li>1h</li> </ul>
1 day	Online self-understanding and awar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nline practice goal setting</li> <li>Self-understanding and awareness</li> <li>Stages of psycho-social development MA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ideo discussion</li> <li>Work Sheet</li> <li>Visual material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h</li> <li>4h</li> <li>5h</li> </ul>
2 day	Online therapeutic communication(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conducting interviews</li> <li>Communication transcript analysis</li> <li>Reflect on communic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ideo discussion</li> <li>Face-to-face interview</li> <li>Work Shee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h</li> <li>4h</li> <li>3h</li> </ul>
3 day	Online therapeutic communicatio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am-based therapeutic communication scenario development</li> <li>Role play practic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ideo discussion</li> <li>Team practice</li> <li>Scenario writ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h</li> <li>4h</li> <li>3h</li> </ul>
4 day	Online Nursing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SE &amp; nursing intervention plan</li> <li>Cases of schizophrenia with auditory hallucination, delusion, and suicide risk</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ideo discussion</li> <li>Individual practice</li> <li>Work Shee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h</li> <li>4h</li> <li>1h</li> </ul>
5 day	Off-line (field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re basic nursing practice</li> <li>Presentation of the MAP</li> <li>Role-play of Team-based scenari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raining and evaluation</li> <li>Face-to-face discussion</li> <li>Peer evalu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h</li> <li>4h</li> <li>1h</li> </ul>
Off-line practice(6day-10day)				
6 day	Off-line (field practice) Orientation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actice goal setting</li> <li>Practice field of therapeutic environment</li> <li>Therapeutic communication applic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ield practice</li> <li>Field guide</li> <li>Practice log writ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h</li> <li>4h</li> <li>1h</li> </ul>
7 day	Off-line (field practice) Nursing Process(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atient history interview and assessment</li> <li>Mental Health Status Examination (MS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ield practice</li> <li>Interview of participants</li> <li>Assessment sheet</li> <li>Practice log writ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h</li> <li>2h</li> <li>2h</li> <li>1h</li> </ul>
8 day	Off-line (field practice) Nursing Process(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ursing diagnosis</li> <li>Nursing intervention</li> <li>Writing an activity therapy pla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ield practice</li> <li>Intervention sheet</li> <li>Practice log writ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h</li> <li>4h</li> <li>1h</li> </ul>
9 day	Off-line (field practice) Nursing Process(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ursing evaluation</li> <li>Prepare for activity therapy (material, brochur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ield practice</li> <li>Work sheet</li> <li>Practice log writ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h</li> <li>4h</li> <li>1h</li> </ul>
10 day	Off-line (field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ctivity therapy team-based performance</li> <li>Case-based nursing process presentation</li> <li>Post-survey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efficacy for group work, learning transfer motiv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ield practice,</li> <li>face-to-face discussion</li> <li>Practice log writing</li> <li>Surve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h</li> <li>4h</li> <li>1h</li> <li>0.5h</li> </ul>

이후 학생들은 개별로 정신상태평가를 숙지하고 교수자가 개발한 조현병 환자 간호 및 의사소통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공유하여 영상 속에 나타난 조현병 환자의 정신상태검사(MSE)를 평가하고, 조현병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태도, 중재를 찾아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5일차는 교내에서 핵심기본간호술(경구투약)을 연습하고 평가한 이후에 시청각 자료로 제작한 정신사회적 발달단계를 발표하였고, 팀기반으로 개발한 의사소통 시나리오를 역할극을 통해 발표하였다. 5일차 발표에 대한 평가는 교수평가와 동료평가로 수행하였다. 6일차부터 10일차는 임상현장에서 실습이 진행되었다. 6일차에는 교수자와 현장지도자의 실습오리엔테이션을 대면으로 하였고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안정병동의 치료적 환경(물리적, 인력, 프로그램 등)을 관찰하고 비교하였으며 대상자와 일반적 주제부터 시작하여

치료적 관계를 시도하는 실습을 하였다. 7일차부터 9일 차까지는 현장지도자의 지도하에 조현병, 기분장애, 신경인지장애, 불안장애와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기 위해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적절한 간호진단을 도출하여 2인 1조로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하였다. 10일차에는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4인 1조로 계획한 활동요법을 오전과 오후에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6일차~9일차 동안 적용한 간호과정을 교수자와 대면토의로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였다.

### 3.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블렌디드 러닝 기반 정신간호학 실습교

육 전·후의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과 학습 전이동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 3.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에게 사전에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의 익명성을 위해 사전 및 사후 설문지에 본인의 별명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고, 참여 도중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주었다. 이에 연구 설명문을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 3.8 중재자의 충실도

본 연구의 프로그램 설계 시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시한 정신간호학 학습목표[24] 및 이론 교과서[29]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정신간호학 실습의 학습목표는 정신간호의 기본원리 즉 자기이해, 의사소통 능력, 간호과정 및 정신질환의 이해를 토대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고 치료적 정신간호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다[23]. 이러한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후 참여하는 학생과 교육자를 위해 학생용 지침서와 지도자용 지침서를 제작되었으며, 회의를 통해 점검 후 확정하고 배포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평균 나이는 23.39세이었으며 남학생이 5명(10.3%), 여학생이 59명(89.7%)이었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높음'이 37명(57.8%), '보통'이 15명(23.4%)이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음'이 31명(48.4%), '보통'이 18명(28.1%)이었다. 선호하는 수업유형은 '비대면 수업'이 25명(39.1%), '대면 수업'이 17명(26.5%), '실습 수업'이 12명(18.8%), '사례중심 수업'이 10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상'이 20명(31.3%), '중'이 38명(59.4%), '하'가 6명(9.4%)이었다.

Table 2.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64)

Variable	Category	n(%) or Mean±SD
Age		23.39±3.41
Gender	Male	5(10.3)
	Female	59(89.7)
Satisfaction of major	Very high	9(14.1)
	High	37(57.8)
	Moderate	15(23.4)
	Low	3(4.7)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Very high	12(18.8)
	High	31(48.4)
	Moderate	18(28.1)
	Low	3(4.7)
Preferred class type	Face to face class	17(26.5)
	Non-face to face class	25(39.1)
	Case focused class	10(15.6)
	Clinical practice class	12(18.8)
Academic performance	High	20(31.3)
	Middle	38(59.4)
	Low	6(9.4)

### 4.2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습 전이동기의 정도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습 전이동기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  $4.08 \pm 0.44$ 점,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4.06 \pm 0.49$ 점, 학습전이동기는 평균  $6.04 \pm 0.69$ 점이었다. 정규성 검증을 위하여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2를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Table 3. Degree of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efficacy and learning transfer

Variable	Mean±SD	Range	skewness	kurtosis
Communication competency	4.08±0.44	1-5	-0.685	1.164
Self-efficacy for group work	4.06±0.49	1-5	-0.400	-0.302
Leadership	3.99±0.60	1-5	-0.282	-0.469
Exchange of opinion	4.07±0.55	1-5	-0.359	-0.377
Evaluation of opinion	3.79±0.61	1-5	-0.168	-0.310
Integration of opinion	4.25±0.49	1-5	-0.473	-0.307
Learning transfer motivation	6.04±0.69	1-7	-0.971	1.043

### 4.3 블렌디드 러닝 기반 정신간호학실습 교육전·후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전이동기의 차이

대상자의 블렌디드 러닝 기반 정신간호학 실습 교육

전·후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습전이동기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블렌디드 러닝 기반 정신간호학실습 교육을 받은 후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t=-7.20, p<.001$ ), 협력적 자기효능감( $t=-10.42, p<.001$ )과 학습전이동기( $t=-7.25, p<.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4.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N=64)**

Variable	Pre-test	Post-test	t(p)
	Mean±SD	Mean±SD	
Communication competency	4.08±0.44	4.47±0.45	-7.20 (.001)
Self-efficacy for group work	4.06±0.49	4.54±0.48	-10.42 (.001)
Leadership	3.99±0.60	4.51±0.53	-8.78 (.001)
Exchange of opinion	4.07±0.55	4.58±0.52	-9.41 (.001)
Evaluation of opinion	3.79±0.61	4.36±0.61	-9.64 (.001)
Integration of opinion	4.25±0.49	4.62±0.44	-6.89 (.001)
Learning transfer motivation	6.04±0.69	6.53±0.65	-7.25 (.001)

### 5. 논의

COVID-19 pandemic으로 인하여 교육의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이전의 전통적 수업방식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간호교육은 COVID-19 장기화로 인해 임상현장실습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혼합한 방식을 적용하는 블렌디드 러닝이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호학 실습 교육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전이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호학 실습 교육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켰으며(사전 평균 4.08점, 사후 평균 4.47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서동주와 정인주[31]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환자 역할과 간호사 역할을 해보는 역할극을 통하여 환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4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을 적용할 수 있었다. 환자, 간호사, 가족 등의 역할을 구분하여 실제

역할극을 시연하면서 치료적 및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동료와 교수자에게 받은 상호피드백을 통해 칭찬과 성찰을 할 수 있었다. 역할극을 통하여 현장실습 전 훈련된 의사소통 능력은 실제 임상실습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들은 특수 부서인 정신간호학실습 전에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치료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 호소한다[9]. COVID-19로 인해 실습이 제한되면서 의사소통의 경험이 없어 정신 질환자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32]. 그러므로 정신간호학 실습 전에 온라인 실습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역할극, 시나리오 개발 및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통해 의사소통 적용 실습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임상실습 시 실제 환자와의 의사소통 적용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한 후 현장 실습에 참여할 경우 학생들의 임상실무역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실습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임상현장에서 적절한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을 발휘하여 치료적 자기 이용을 하여 임상실습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호학 실습 교육이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켰으며(사전 평균 4.06점, 사후 평균 4.54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희정[17]의 연구에서 동료피드백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공동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낼 때 자신감이 높아지고 팀원과의 상호협력을 증가시킨다[16]. 본 연구에서는 협동학습과 문제기반학습을 팀원과 수행함으로써 활발한 동료와의 피드백을 통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실습과제들을 동료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와 동일한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했던 선행연구에서도 팀 기반 학습방법 후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하부요인인 리더쉽, 의견교환, 의견평가 및 의견통합 영역에서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9].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온라인 실습과 현장실습 시 활동요법, 간호과정 적용 실습과 역할극 등을 팀 기반으로 수행하는 빈도가 높았던 점이 협력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팀 기반 학습법이 협력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 결과[19]를 지지한다. 최근 임상현장에서는 추구하는 인재상으로 타부서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는 간호업무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 시스템 안에서 타 부서와의 협력이 중요하다[13]. 이런 시점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의료인으로서 간호대학생이 길러야 할 핵심역량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은 기존의 강의 위주의 수업과는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대안을 추론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학습자 중심의 협력적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콘텐츠가 연계된 협력 강화 교수학습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이 학습전이동기를 향상시켰으며(사전평균 6.04점, 사후 평균 6.53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플립러닝을 적용한 정신간호학 교육에서도 학습전이동기가 교육 적용 전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33]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준다. 김남석과 고영주[34]는 통합시뮬레이션실습 교육 후 학습전이동기가 향상되었으며 이는 임상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학생들이 해결해보면서 임상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임상 상황에서 자주 관찰될 수 있는 조현병 환자의 증상 및 간호와 관련된 동영상 개발하였다. 동영상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증상을 사정하고, 증상에 따른 간호중재 및 의사소통을 적용해볼 수 있는 실습이 학습전이동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학습전이동기는 새롭게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를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된다[27].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은 정신간호학 I, II 이론 교과목을 통해 지식을 획득한 후 실습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정, 간호계획 및 간호수행을 수행하면서 적용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간호대학생의 학습전이동기는 이론 수업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임상현장에서 실무로 실천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된 연구결과와[35] 일치한다. 미래 간호교육에서도 학습전이동기를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교육에 참여하여 실습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간호대학생의 학습전이동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습전이동기를 향상시키는 전략개발이 요구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임상실습 제한이 지속화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전이동기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블렌디드 러닝은 기존 교육방법과 다르게 실시간 및 비실시간의 연계, 개별학습과 협력학습의 연계, 콘텐츠의 통합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혼합을 통해 최상의 학습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 또한 블렌디드 러닝을 통하여 학습의 편리성, 융통성 및 접근성을 높여주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블렌디드 러닝은 향후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일개 도시에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단일군 원시실험설계를 시행하여 대조군과 무작위 할당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추후 대조군과 무작위 할당을 통해 엄격한 실험설계로 교육의 효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 6. 결론

본 연구는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전이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호학 실습 교육 후 대상자와의 중요한 상호작용인 의사소통 기술과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길러 주고 임상현장 실무적용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학습전이동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전통적인 임상실습군과 블렌디드 러닝 기반 임상실습군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며, 온라인 정신간호실습 운영에 있어 다양한 방법의 학습모듈,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Timeline: WHO's COVID-19 response*. WHO (online)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interactive-timeline>
- [2] Korean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COVID-19*. KDCA (online)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18162&act=view](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18162&act=view)
- [3] M. Tomietto, D. Comparcini, V. Simonetti & G. Cicolini. (2020). Nursing education: challenges and perspectives in a COVID-19 age. *Professioni Infermieristiche*, 73(3), 131-132. DOI: 10.7429/pi.2020.733131
- [4] J. I. Cho, H. J. Choi, S. J. Hon & T. Y. Ahn. (2020). A study on the types of future teaching -learning and space.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19(1), 13-24. DOI: 10.7743/kisee.2020.19.1.013
- [5] S. H. Lim. (2021). Content analysis on online non-face-to-face adult nursing practice experienced by graduating nursing students in the contact er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4), 195-205. DOI: 10.5762/kais.2021.22.4.195
- [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21). College handbook for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58-59
- [7] Y. M. Song. (2020). Effects of a online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program on the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counseling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 271-290. DOI: 10.22251/jlcci.2021.21.11.289
- [8] J. Y. Kang. (2020). Simulated Nursing Practice Education in the Contact Age: A Mixed Methods Case Stud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1), 289-303. DOI: 10.22251/jlcci.2020.20.18.937
- [9] H. S. Kim, E. M. Kim & D. S. Lee. (2021).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Education in School Practice: Focused o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2), 169-178. DOI: 10.5762/KAIS.2021.22.2.169
- [10] S. S. Lee. (2007). Design principles of interactions for blended learn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3(2), 225-250.
- [11] H.M. Vo, C. Zhu & N. A. Diep. (2017). The effect of blended learning on student performance at course-level in higher education: A meta-analysis. *Studies in Educational Evaluation*, 53, 17-28. DOI: 10.1016/j.stueduc.2017.01.002
- [12] E. K. Han & Y. J. Suh. (2020). Effects of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students' discrimination behavior, attitude, and social distance toward mental ill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 59-72. DOI: 10.22251/jlcci.2021.21.11.289
- [13] C. H. Noh. (2000). Comparative Study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9(2), 145-155.
- [14] H. B. Yim, O. J. Koh, H. Cho, H. K. Kim, S. O. Chang & J. N. Shon. (1996). Study on the perceived concept about therapeutic communication of nurses working in psychiatric war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5(1), 88-99.
- [15] J. W. Park. (2000). The experiences of psychiatric patients about nurses' nonverbal communication behavior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1), 35-43.
- [16] A. T. Pescosolido. (2003). Group efficacy and group effectiveness: The effects of group efficacy over time on group performance and development. *Small Group Research*, 34(1), 20-42. DOI: 10.1177/1046496402239576
- [17] H. J. Choi. (2021). Effect of Nursing Students' Peer Feedback Korean Advanced Life Support (KALS) Simulation Practice for Self-efficacy for Group Work, Team Mental Model, Learning Prese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8), 353-364. DOI: 10.22251/jlcci.2021.21.8.353
- [18] J. W. Yoo. (2014).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for Group Work, Team Efficacy, Interaction, and Team Performance in Team Project-based Learning in a College Classroo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0), 89-110.
- [19] N. Y. Lee & J. Y. Han. (2018). The Effects of Self-efficacy for group work and learning presence on transfer of learning in TBL(Team-based learning) using flipped. *Journal of the Korea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9(4), 951-960. DOI: 10.7465/jkdi.2018.29.4.951
- [20] Y. S. Kim & K. S. Lee. (2021). Online Clinical

-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7), 160-171.  
DOI: 10.5762/KAIS.2021.22.7.160
- [21]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22] J. S. Kim. (2020). The effect of design thinking-based nursing learning program in students.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ransactions*, 8(4), 1-9.  
DOI: 10.22716/sckt.2020.8.4.030
- [23] G. M. Phillips & J. T. Wood (Eds.). (1990).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SIU Press.
- [24]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25] S. B. Alavi & J. McCormick. (2008). The roles of perceived task interdependence and group members' interdependence in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 group contex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3), 375-393.  
DOI: 10.1348/00070 9907X240471
- [26] S. Y. Kim & M. H. K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for group work, perceived usefulness, flow, perceived interaction, and learning outcomes in team project-based learning with closed-type SN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2(1), 85-110.
- [27] H. W. Ayres. (2005).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Doctoral thesis.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Raleigh.
- [28] S. Y. Park & Y. R. Kwon. (2012). The effect of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o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1(1), 79-88.
- [29] K. S. Han. (2020).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Seoul: *Sumoonsa*.
- [30]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2). *Nursing education learning objectives*. Korean Nurses Association. Seoul.
- [31] D. H. Seo & I. J. Jeong. (2019). The effects of role playing on empath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for nursing students i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3(4), 263-270.
- [32] M. E. Kim, M. J. Kim, Y. I. Oh & S. Y. Jung. (2020). The effect of online substitution class caused by coronavirus(COVID-19) on the learning motivation, instructor-learner interaction, and class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519-541.  
DOI: 10.22251/jlcci. 2020.20.17.519
- [33] Y. R. Kweon & B. S. Choi. (2020). Effects of a psychiatric nursing education using flipped learning on learning transfer motivation and learning self-effici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1), 447-460.  
DOI: 10.37727/jkdas. 2020.22.1.447
- [34] N. S. Kim & Y. J. Ko. (2020).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elf-efficacy, learning satisfaction, and transfer motivation among nursing students. *Focused on Integrated Simulation Practicum*, 8(2), 15-25.  
DOI: 10.144 00/JDC.2020.18.4.301
- [35] Liebermann, S. & Hoffmann, S. (2008). The impact of practical relevance on training transfer: evidence from a service quality training program for German bank clerk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12(2), 74-86.

## 서 유 진(Yujin Su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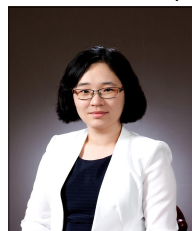
[정회원]



- 2020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21년 3월~현재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교수학습법, 치매
- E-Mail : yugibabe@deu.ac.kr

## 한 은 경(Eun-Kyoung Han)

[정회원]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8년 9월~현재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성남)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교수학습법, 수면, 치매
- E-Mail : haahaa21@hanmail.net